

“내일보다 이 순간에 집중...항상 최선 다하고 싶어”

‘대체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이 말한 KIA에서의 한 달

27경기 10홈런·27타점...“훈련 의식 않고 좋은 스윙에 집중” “KBO는 경쟁력 높은 리그...간절함으로 하나된 원팀에 감명”



27경기 10홈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존재감은 강렬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 로드리게스가 한국 생활을 돌아봤다. 아데를린은 지난 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가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무대를 밟은 지도 어느덧 한 달. 계약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하지만 동행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할증인 카스트로의 복귀 시점이 유동적이다. 구단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가 남긴 숫자는 선명했다. 6월 삼성전까지 27경기 타율 0.250, 10홈런, 27타점. 장타율은 0.580다. 25안타 중 10개가 홈런이다. 하지만 그는 한 방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서지는 않는다고 했다. “좋은 공이 오면 놓치지 않고 내 스윙을 하려고 노력한다”며 “그 결과가 홈런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찬스에서도 강하다. 득점권 타율은 0.360. 홈런 4개를 기록 중이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했다. “주자가 있든 없든 똑같이 준비한다”며 “매 타석, 매일, 매주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KBO리그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을 더 믿는 편”이라며 “한국에 와 보니 팬층이 두텁고 경쟁력이 높은 리그라는 것을 느꼈다”고 돌아왔다. 팀에 대한 인상 역시 깊었다. 박재현과 나성범, 김선빈 등을 언급하며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다”고 평했다. 특히 선수 개개인보다 팀이 가진 분위기에 더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기려는 열망과 간절함이 팀 수준을 높여주는 것 같다”며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적을 과정에서는 구단 전체의 도움에 감사로 표했다. “선수들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모두가 프로페



아데를린

(KIA 타이거즈 제공)

셔널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팬들에 대한 인상도 빼놓지 않았다. “경기장 안팎에서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항상 좋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남은 목표도 뚜렷하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다. “처음 왔을 때부터 목표는 같았다”며 “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팀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루에 집중

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팬들에게 약속을 남겼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경기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주홍철 기자

홍명보호, 본선행 최대 복병은 기습 소나기



멕시코 하면 대다수 사람이 숨이 턱턱 막히는 쉼 없는 듯한 더위를 먼저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오히려 이 시기 한국의 여름 날씨보다 훨씬 온화하고 쾌적하다. 6일(현지시간)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체감한 기온은 국내의 습한 여름 찜통더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웃돌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지만, 습도가 낮아 대기가 끈적이지 않는다. 덕분에 바람이 부는 그늘로 들어가면 체감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며 선선함마저 느껴진다. 이 같은 기후적 특성은 고도에서 기인한다. 과달라하라와 홍명보호의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그 광역권인 사포판 지역은 해발 1500m가 넘는 고원 지대다. 덕분에 이 시기 과달라하라의 한낮에도 비교적 쾌적한 기온이 유지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기온이나 습도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변수는 기습적인 ‘소나기’다. 멕시코는 통상 6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우기(雨季)에 접어들다. 이 시기 과달라하라 주변 지역은 낮 동안 달아오른 대기가 오후 늦게 불안정해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짧고 굵게 쏟아지는 일이 잦다. 무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 우려는 덜었지만, 훈련과 경기 당일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해지면 17도 안팎에 폭우도...대표팀 훈련도 오전으로 앞당겨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오른쪽부터)과 황인범, 이기혁이 6일(현지시간)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치바스 바에 베레데에서 훈련 중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우는 홍명보호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대표팀이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현지시간 11일에는 오후 6시부터 강한 뇌우가 예보되어 있으며, 경기 시작 시각인 오후 8시 기점의 강수 확률은 50~55%에 달한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이날 첫 훈련을 앞두고 “날씨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홈 감독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결국 첫날 훈련 직후 훈련 시간을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대표팀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차려진 사

전 캠프에서부터 줄곧 오후에 맞춰 전술 훈련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과달라하라 일대처럼 오후마다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경우 불이 미끄러져 부상 위험이 커지는 데다, 급격한 체온 저하로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 본선 무대를 앞두고 신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훈련 시간대를 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회 기간 내내 오전 훈련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용수 전남도체육회 수석부회장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 총감독 선임

박용수 전남도체육회 수석부회장(전남탁구협회장·사진)이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한국선수권 총감독으로 선임됐다.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마스터즈 탁구대회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85개국에서 3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해 남녀 단식과 복

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40세 이상 선수들이 연령별 부문으로 나뉘어 경쟁한다. 특히 승패를 넘어 탁구를 매개로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세계 생활체육 축제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와 화합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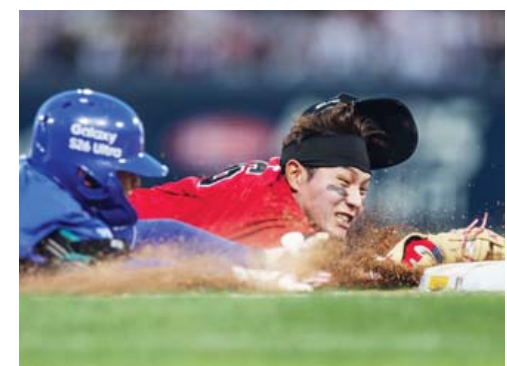
박용수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남의 김현민 선수가 50대부에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박용수 총감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이끌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탁구 축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투혼의 베이스 태그’ 오선우, 부상 악재

오른쪽 어깨 관절염 부분 손상 진단...“2주 치료 후 재검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전력 이탈 악재를 맞았다. KIA는 내야수 오선우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KIA 구단은 7일 “오선우가 선한병원 검진 결과 오른쪽 어깨 관절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며 “우선 2주 동안 치료와 안정을 취한 뒤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상태를 확인해 복귀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상은 전남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전에서 발생했다. 오선우는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2-2로 맞선 8회초 2사 1·3루 수비 상황에서 상대의 빗맞은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다. 1루 베이스 커버를 위해 몸을 던지다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들것에 실려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오선우가 지난 7일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8회 1루 베이스 태그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날 그는 0-0으로 맞선 6회말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그러나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KIA는 당분간 오선우의 공백을 안게 됐다. /주홍철 기자

‘최강’ 안세영, 인니오픈도 제패

결승서 아마구치 2대0 완파...2주 연속 금빛 스매싱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주 연속 국제대회 정상에 차지하며 세계 최강의 기량을 보란 듯이 입증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전에서 아마구치 아카네(3위·일본)를 2-0(23-21 21-12)으로 꺾었다. 이로써 지난주에 열린 싱가포르 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었던 안세영은 2주 연속 정상에 등극했다. 아울러 2021년과 2025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만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직전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도 아마구치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최근 맞대결 9경기에서 8승 1패를 거두며 압도적인 우위를 재확인했다. 안세영은 1게임에 듀스 점전 끝에 가져왔다. 안세영은 20-18로 게임 포인트에 먼저 도달했지만 2점을 허용하면서 동점이 됐다. 이후 21-21에서 연이어 날카로운 직선 공격으로 아마구치를 공략하며 첫 게임을 따냈다. 기세를 모아 2게임에서는 초반부터 일찍 승



안세영이 7일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전에서 아마구치를 꺾고 우승 한 후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기를 잡았다. 7-7에서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13-8로 점수 차를 벌렸다. 이후 16-12에서 5연속 득점을 올리며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